



## 01

## 결핵활동가들, 광범위한 국제연합체 구성한다

결핵 활동가들은 커뮤니티태스크포스(CTF)를 재구성하여 보다 광범위한 국제연합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결핵과 다제내성 결핵, 결핵/에이즈로 고통 받는 커뮤니티들을 대변하겠다는 뜻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CTF는 Stop TB 파트너십의 워킹그룹, 또는 조정위원회의 커뮤니티 대표단 자격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CTF의 선언은 Stop TB 파트너십의 주최 하에 CTF의 전·현직 위원을 포함한 30명의 활동가들이 제네바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3일 간의 CTF PLUS 회의의 결과물이다. 초기에는 국가적, 지역적 수준에서 커뮤니티를 대표하여 일하는 활동가들의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될 새로운 국제 연합체는 오는 2013년 3월 24일 세계결핵의 날에 출범과 동시에 추가 위원 모집을 시작한다.

CTF PLUS 회의의 공동의장인 Blessina Kumar와 Carol Nawina-Nyirenda가 선언문에 공동 서명했다. 두 사람은 결핵으로 피해 입은 커뮤니티들을 대신하는 Stop TB Partnership 조정위원회의 위원이며, Ms Kumar는 위원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

## 02

## 2015년 이후의 결핵퇴치 목표 설정을 위한 회의 열려

WHO와 Stop TB Partnership이 개최한 워크숍에 모인 참가자들은 2015년 이후의 국제 결핵퇴치운동에 대한 지침이 될 목표와 이상점의 설정을 제안했다. 결핵 고위험국가와 개발 및 기술부문 단체, 기관의 대표자들과 시민사회의 지지자, 역학자, 모델링 전문가 등, 31명의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특히, 결핵 사망제로, 결핵 발생제로와 같은 아심찬 이상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이러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2025년까지의 임시 목표를 설정하는 데 폭넓은 합의를 가졌다. 그 첫 번째는 2025년의 결핵 사망자 수를 2015년 대비 75%로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는 2015년 달성목표인 결핵 사망자 120만 명을 2025년에는 30만 명까지 줄인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는 이와 밀접한 임시 목표로, 결핵 발병률을 2025년에는 2015년 대비 40%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2015년 이후의 개발 의제에서 부각될지 모를, 보편적 보건 영역에 연관된 세 번째 2025 목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들은 2025년까지 결핵으로 고통 받는 가정들의 재정적인 지출 수준을 제로화하는 목표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였다.

이처럼 제안된 임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핵 검진과 치료, 특히 취약빈곤계층에 대한 상당한 규모 확대와, 보편적 보건 영역에 대한 진전과 빈곤수준 감소, 신 결핵관련 기술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부문의 대규모 투자,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폭넓은 활용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2030년과 2040년에는 보다 강력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잠재적 백신과 보다 효과적인 치료방법, 적시 진단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위해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03

## 아프리카의 시민사회, 보건 분야를 위한 통일된 자원 동원 요구

지난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GAVI Alliance(세계백신면역연합) 사무소에서는 '건강을 위한 보다 많은 투자, 더 나은 건강을 통한 이익'을 주제로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 특별한 자리에는 아프리카 시민사회부문의 대표자들 과 함께 아홉 개의 주요 국제 보건 단체가 참가했다.

점심시간의 차레 동안, GAVI의 CEO Seth Berkley, Stop TB Partnership 사무총장 Lucica Ditiu, UNITAID 사무차장 Philippe Duneton, UNAIDS 사무차장 Luiz Loures, 글로벌펀드 정치 및 시민사회국장 Linda Mafu, 말라리아 퇴치파트너십 사무차장 Thomas Teuscher가 함께 모여 "아프리카의 보건을 위한 지역 내 자원 동원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공통된 목적에 따라 결집된 시민사회단체들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이들 국제 보건 파트너십의 지도자들은, 아프리카에서의 보건증진을 위해 통합된 접근방식에 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프리카 시민사회 보건분야의 대표자들은 하나의 특정 질병이나 보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일하는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지양하기를 요청했다.

## 04

## 조르제 삼파이오 결핵퇴치 특별대사의 퇴임사



6년이 지나, UN사무총장 결핵퇴치 특별대사로서의 내 임무도 끝나다  
가왔다. 나는 2008년의 봄,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 UN 전 사무총장  
Kofi Annan은 나에게 연락해 결핵퇴치 참여에 대한 나의 관심을 살폈다.  
나의 부친은 포르투갈 공공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의학박사였기 때문에, 나는 어린 시절부터 결핵을 포함한 여러 보건 문

제와 친숙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나 역시도 우리의 시대에 이 질병의 유행이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  
인지 알지 못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결핵의 해로운 영향과 엄청난 사망 수에 대해 알게 되면  
서, 나는 열의를 갖게 되었고 결핵으로 인한 고통을 예방하고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애쓰기로 결정했다.

특별대사로 지낸 몇 년간, 나는 전 세계의 여러 고위관료들에게 실천을 요청해왔다. 나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와 에스토니아의 탈린 지역의 결핵환자들 눈 속에서 보았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으로부터, 인도  
네시아 자카르타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로신하의 보건소에서 만난 커뮤니티 종사자의 헌신으로부터, 케냐  
마타하레에서 결핵에 대해 공부하면서 축구를 즐기는 청년들의 자극으로부터, 내가 만난 여러 재능있는 캠페  
인전문가들의 열정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메시지를 전했다. (중략) 나는 결핵으로 고통받는 커뮤니티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커뮤니티들은 나에게 영감을 심어주는 주된 근원이었  
고, 지난 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나는 그들 모두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  
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격려하며, 동시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